

2주차

고대국가가 등장하다 : 삼국의 건국신화

박 미 선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주몽, 고구려를 건국하다

- 도입
- 주몽신화
-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

02. 온조, 백제를 세우다

- 백제의 건국신화
- 백제와 고구려, 부여의 관계

03. 혁거세, 신라를 세우다

- 신라의 건국신화
- 혁거세와 알영, 두 성인(聖人)

04. 가야의 건국신화

- 가야의 두 가지 건국신화
- 건국신화로 본 가야 사회

2차시

온조, 백제를 세우다

학습목표

- 백제 건국신화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.
- 백제 건국신화를 통해 고구려 및 부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백제의 건국신화
- 백제와 고구려, 부여의 관계

백제의 건국신화

백제의 건국 상황

백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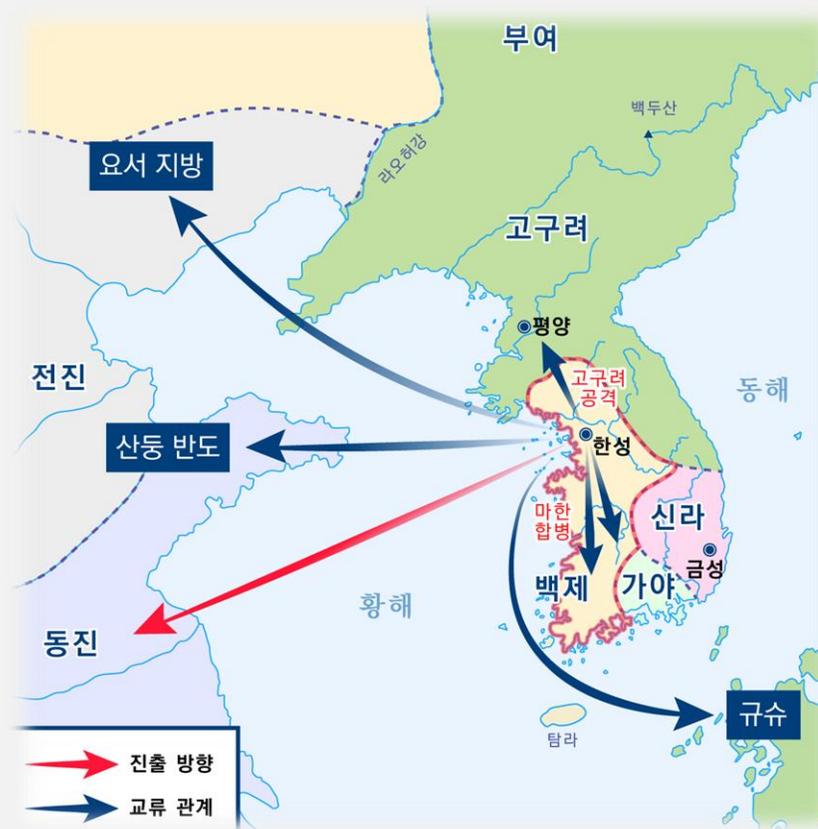
- 기원전 18년: 건국
(수도: 위례성)
- 4세기: 전성기를 맞이함



4세기의 백제

백제

- 475년: 웅진으로 천도
- 538년: 사비로 천도
- 660년: 멸망



4세기의 백제

백제의 건국 신화(1)

- 백제 시조 = 온조
- 온조의 아버지=주몽, 어머니=졸본 왕의 딸, 형 =비류
-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, '유리'가 와서 태자가 됨

백제의 건국 신화(1)

- 온조와 비류는 졸본을 떠나 남쪽으로 감
 - 미추홀(인천)
 - 위례성(서울)에 도읍, 나라이름=십제(기원전 18년)
- 비류가 온조에게 옴 → ‘백제’



■ 풍납토성 모형 전시

백제의 건국 신화(2)

- 건국자 = 비류왕
- 아버지=우태(북부여왕의 손자),
어머니=소서노(졸본 사람), 동생=온조
- 우태가 죽고, 주몽이 졸본에 와서 고구려를 세우고
소서노를 왕비로 맞이

백제의 건국 신화(2)

-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,
유리가 졸본으로 와 태자가 됨
- 비류와 온조는 어머니 모시고
남쪽으로 가서 **미추홀(인천)**에 자리 잡음

백제의 건국 신화의 특징

- 시조 온조왕의 신성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
- 고구려왕이나 부여왕의 후손임을 강조

→ ‘하늘신의 자손’

→ 그 후손인 백제왕도 천제의 후손으로 ‘신성한 존재’

백제와 고구려, 부여의 관계

부여와의 관련성

- 온조왕, 백제를 건국하자마자 ‘동명왕’ 사당을 세움

↳ 부여의 시조

- 26대 성왕(재위 523~554년)은 나라이름을 **‘남부여’**로 바꿈(538)

백제의 건국 신화

-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살필 수 있음

고구려와의 관련성

- 위례성(서울) 주변 백제 무덤이 고구려 무덤과 비슷



서울 석촌동 고분군



중국 길림성 장군총

[출처01]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

[출처02] 한성백제박물관 풍납토성 전시(정다영 개인 소장)

[출처03] 문화재청

<https://www.heritage.go.kr/heri/cul/imgHeritage.do?ccimId=6303632&ccbaKdcd=13&ccbaAsno=02430000&ccbaCtcd=11>

[출처04] 국립중앙박물관

<https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relic/search/view?relicId=157667>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진형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